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49호 [루게 제24397호] 주제102(2013)년 12월 15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완공을 앞둔 마식령스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완공을 앞둔 마식령스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인 황병서 동지,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산세험한 건설장에 여러 차례나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마식령스키장을 먼 후날에도 인민들이 덕을 보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되게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공사완공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였다.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 속도, 《마식령 속도》 창조의 불길놀이 스키장 건설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정해 주신 기간내에 무조건 끝내고 최고사령관 동지의 결심은 곧 조선의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온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군인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마식령스키장이 완공될 날이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다.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이 훌륭히 반영된 특색있는 마식령호텔과 대화봉정점을 비롯한 여러 개소에 자리잡은 휴식장들, 눈포용저수지들, 직승기착장, 수습동의 종업원살림집 및 편의봉사 건물, 식도조종실 등 전반적인 대상건설이 결속되는 자랑스런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애국의 호소문으로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불길을 지켜주시고 마식령스키장을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으로 훌륭히 완공하도록 걸음걸음이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웃고 떠들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진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전국의 청소년학생들이 마식령스키장에서 스키와 스케이트, 썰매도 타면서 겨울철야영을 할수 있게 단번에 수백명을 수용할수 있는 숙소 및 봉사시설을 더 건설해주자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새로 건설할 건물들의 위치도 잡아주시고 2단계 건설을 진행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이겨내며 고귀한 땀을 아낌없이 바친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 의해 마식령스키장이 완공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강추위속에서 2당의 명령을 결사관철하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들의 위훈을 우리 당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는 최상최대의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사기는 충천하며 용기는 백배하다고 하시면서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마식령스키장을 올해 안으로 기어이 완공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땀만 추워도 마다하지 않고 또다시 건설장에 찾아오시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함으로써 빈말을 모르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의 현명한 령도와 군인건설자들의 결사관철의 의지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마식령호텔과 스키봉사 및 숙소 건물, 초, 중급주로 휴식장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마식령호텔의 침실과 휴식홀, 식사실, 수영장 등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호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고 요소요소와 구석구석이 자연과 친숙하면서도 산골 맛이 난다고 말씀하시였다.

마식령호텔은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데서 대상의 용도와 특성을 살릴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구현된 표본건축물, 우리 나라의 호텔들 가운데서 제일 잘 건설한

호텔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스키봉사 및 숙소 건물과 초, 중급주로 휴식장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고 그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건설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건축물들과 봉사 시설들의 설계와 시공, 건축선택과 시설물배치가 정말 잘되였다고 하시면서 특히 우리의 힘과 기술로 건설했으며 우리가 마음먹은대로 운영할수 있게 된것이 무엇보다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마식령스키장은 우리 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속에서 특별한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건설대상이라고,

이제는 그 누가 와보아도 경탄을 금치 못할것이라고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마식령스키장의 스키주로상대로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마식령스키장의 스키주로는 그 수에 있어서나 총연장길이에 있어서 세계적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스키는 물론 스케이트와 썰매도 탈수 있는 종합적인 겨울철체육기지라고 하시면서 조명시설까지 설치하면 밤에도 운동을 할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줄줄이 떨어진 스키주로를 만족하게 바라보시면서 마음껏 주로를 지켜내리

라고, 조국과 인민앞에 세운 그들의 위훈을 우리 당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는 최상최대의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의 사기는 충천하며 용기는 백배하다고 하시면서 군인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마식령스키장을 올해 안으로 기어이 완공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땀만 추워도 마다하지 않고 또다시 건설장에 찾아오시어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명령을 결사관철함으로써 빈말을 모르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정보도반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절세의 애국자



↑ 고산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6월
→ 외국방문의 길에서 일군들과 대화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8월



락원기계연합기업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7(2008)년 11월



강계편직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12월



함주평풍덕염소목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7(2008)년 8월



강원도토지정리사업을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88(1999)년 3월



룡양광산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0월



룡성식료공장에 새로 건설된 간장직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9(2010)년 11월



오랜 력사문화유적인 랑천사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1(2002)년 6월



새집들이한 원산청년발전소의 제대군인신혼부부의 가정을 방문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98(2009)년 1월



대흥국수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체100(2011)년 10월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창조와 건설의 최전성기

주체 102(2013)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

주체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지는 조국 강산에 강성부흥의 찬란한 레일을 앞당겨오는 장엄한 건설의 대진군이 시작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해 어버이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구상하시고 작정하신 방대한 대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된데 이어 뜻깊은 올해 건설부문에서 거창한 대진군이 이루어졌다.

내 나라의 역센 기상 하늘에 닿은 기념비적건축물들이 거창하게 일떠서세인을 경탄시키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의 령도밑에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우리 조국의 어둡고 오늘, 레일의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대기념비들과 세계명명을 앞서나가는 최첨단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워 창조와 변혁의 최전성기를 안아왔다.

남들이 10년, 20년이 걸려서야 할 방대한 규모의 세계적인 건축물들을 한해사이에 완공한것은 그 어느 나라 건설역사에도 일찍이 있어본적이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 정초부터 연 100여차례 걸쳐 건설장들과 공장, 기업소, 농장, 단위들을 찾으면서 대비약의 불길게 지어주시고 천만군민에게 무한대의 활력을 부여주시으로써 시대를 격동시키는 사면들이 다제군으로 일어나게 하시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두번째 해가 조국청사에 특기할 창조와 변혁의 해로 빛나게 장식되었다.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변혁의 기쁨 비로

위대한 진승 60돐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 조국해방전쟁기념탑이 세계적인 기념물로 훌륭히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진승기념관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정신과 위훈이 집대성된 대진당으로 일떠세우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진화의 나날에 발취한 군대와 인민의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 위대한 조국수호정신을 오늘날의 김정일애국주의로 승화시켜 사회주의대건설의 진군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위전축면적이 수만㎡나 되는 본관을 새로 건설하고 진승기념탑의 부주제군상들과 어울리게 야외전시장들을 꾸려 하나의 대로전박물관을 일떠세우어 하는 진승기념관건설은 공사량과 건설기간에 있어서 상상상을 초월하는 방대한 대건설전투였다.

당의 명령이란 천만산악도 단숨에 떠올리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인 인민군대의 모든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70일 만에 기념관본관팔조공사를 끝냄으로써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낮과 밤이 따로없는 드세한 공적전의 나날에 수만㎡의 건물물들이고 교양마당조각, 율리리공사, 복지조성 등 모든 공적에서 새로운 진군속도가 창조되었다.

작공부터 몇달사이에 총공사량의 90%에 달하는 파제가 성과적으로 수행되어 6월에 들어와 건설은 완공단계에 이르렀고 본관내부건축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건설전투의 나날 건설장을 무려 18차례나 현지지도하시고 백수십차례의 가르침을 주시었다. 깊은 밤, 이른새벽에도 현지에 나오시어 원수님께서 일선 위대한 수령님의 피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향상하도록 하시였을뿐 아니라 전시관들과 대항변경화, 전시물 등 모든 공간들을 배후산정제위인민의 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길이 전하는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로 꾸리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혈은 끝이 없었다.

진승기념관의 특성에 맞게 내부건축물들이 특색있게 조형화, 예술화된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건축미학사상의 빛나는 구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필 <위대한 현대에 경의를 드린다>를 모신 <승리>상을 정면에 안고 불과 10개월만에 웅장하고 위용있게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동당시대 새로운 건설의 전성기를 펼쳐나가는데서 본보기가 마련하신 대기념비적건축물이다.

21세기의 문명개화기를 열어놓은 거창한 대건설전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창건 65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를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해로 정하여주시고 건설부문 사업을 진두에서 지휘하시었다.

당의 위대한 구상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장엄한 대진군이 개시되었다.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없는 본보기적 건축물들,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가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보람찬 건설

전투에서 주체성과 인민성, 사상미학적 요구와 조형예술성을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여 상상상을 초월하는 창조물들을 짧은 기간에 완공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건설전투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것은 창조와 건설의 영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와 전체 군대와 인민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자랑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주체의 가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며 삼천리강토우에 온 세계가 우러리려는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의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쳐가시는 사회주의문명국가건설의 웅대한 설계도와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강성국가건설 위업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라는것이 뜻깊은 올해의 대건설전에서 천만군민이 심장에 새긴 철의 진리이다.

조선중앙통신사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류례없이 장엄한 투쟁의 진두에서 불철주야의 고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애국, 애민, 애족의 사상과 리념 그리고 전체 군대와 인민의 애국충정의 힘이 어떤 거대한 최전성기를 안아왔는가를 전하기 위하여 주체102(2013)년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관한 상보를 발표한다.

수도 평양의 풍치아름다운 석박산기슭에 건설된 조국해방전쟁기념탑 사모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도덕리에 의하여 솟아난 대기념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명당자리에 터전을 잡아주시는데 이어 포배치와 묘비의 형상, 묘비의 글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며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주시었다.

지난 2월 2일 작공의 첫삽을 박은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산중턱의 언덕을 깨내며 19m높이로 잘라내야 하는 공사를 40여동안에 끝내고 근 2 000㎡의 용벽콘크리트 치기와 각종 구조물기초공작을 20일 동안에 해제했다.

각 도의 건설자들도 기념탑 붉은 기둥의 돌시공을 비롯하여 3만 4 000여㎡의 돌시공을 6월말까지 성과적으로 끝내고 묘비들을 추모감이 나면서도 무겁게서 형상하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가 새로 건설됨으로써 수령만세를 높이 부르며 원수들과 용감무쌍하게 싸운 인민군열사들의 영웅적 위훈이 세세년년 영예롭게 빛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각지에 도인민군렬사묘들을 더 잘 꾸리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각 도, 시(구역),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한결같이 펼쳐나 수많은 인민군렬사묘들을 훌륭히 개건, 건설하였다.

함경남도에서는 함흥시와 단천시, 금야군, 정평군, 흥원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인민군렬사묘들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주변에 1만 1 000여그루의 나무와 푸른 잔디를 심어놓았다.

청진시 청암구역, 태권군, 통강군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문주, 묘비, 화환전정대를 최상의 수준에서 향상한것은 혁명선배들에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도덕적 의무를 다한 숭고한 경의의 표시이다.

조국을 지켜 싸우다 희생된 열사들의 위훈을 길이 전해갈 일념으로 사리원, 정주, 해주시와 회창, 연안, 안악, 신천, 박천, 동명군의 근로자들도 열사묘들을 한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개건, 건설하였다.

강계시와 안변, 금강, 고성군의 인민들은 열사묘들을 잘 꾸리고 3510지공적전투에서 가슴으로 적의 회구를 막아 부대의 돌격사를 연 공화국영웅들을 비롯한 인민군렬사들과 인민의 생명대신을 지켜 싸운 내부군렬사들을 정히 안치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을 맞으며 수도 평양과 각지에 훌륭히 개건, 건설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와 인민군렬사묘들은 혁명선배들에 대한 우리 당의 숭고한 도덕적 의무를 다한 숭고한 경의의 표시이다.

마식령지구가 세계적인 스키장으로 현지 개벽되었고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마식령의 120여공이 합출한 산발들을 여러차례나 넘고넘어서서 군인건설자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공사를 최단기간에

다그쳐 끝낼수 있는 대책들을 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6월 4일에 보내 주신 력사적인 호소문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하기 위한 전격의 나팔소리였다.

마식령전역에 21세기의 새로운 일대백공적속도창조의 최성이 세차게 울려 퍼졌다.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과 돌격대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를 심장에 새겨안은 때로부터 100일이 되는 9월 12일까지 공사속도를 2배 이상으로 높여 10개의 스키주로를 형성하고 근 60개의 대건설기를 다그침으로써 올해안에 방대한 공사를 끝낼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최후공적전의 기상이 나래지는 건설장을 또다시 찾으면서 마식령스키장이 겨울을 부르고 겨울이 마식령스키장완공을 기다린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피끓는 심장아래에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질풍같이 내달려 현재까지 여러 휴식장소들과 눈로용지수지들, 직속기착장, 살림집 및 봉사건물들을 비롯한 수십개 대상의 건축 및 시설공사를 끝내는 혁혁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말도 령을 넘기기가 힘들어 주고 갔다는 마식령의 천연산지에 10년이상 걸려야 할 대규모스키장을 짧은 기간에 문명국상징의 하나로 엄대세우게 된 장자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력사적기적이다.

마식령인민건설자들의 공적속도가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사회주의건설장들로 타탄져갔다.

문수물놀이장을 세계1등급의 물놀이장으로 건설할때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아안은 군인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짧은 기간에 1만 9 000㎡의 면적의 수조를 단숨에 건설한 기세로 창조와 불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물전기재와 건설용장비들이 용을 쓰며 낮과 밤을 모르는 전투장치는 불도자니마냥 뛰어넘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불꽃나는 건설장을 5월과 8월에 이어 9월에도 거듭 찾으면서 어버이장군님의 립상을 정중히 모시고 대 건축물들의 특성과 구색이 맞게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인민들이 다 자는 깊은 밤에도, 새날이 동러오는 이른새벽에도 휴먼디 날리는 건설장에 나오시어 구체적인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시는 불멸의 로고는 군인건설자들의 가슴마다에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었다.

군인건설자들은 기관산식으로는 몇달이 걸려야 할 실제체력관팔조공사를 한달동안에 해제했다.

그 누구도 해본적이 없는 물미그림대를 비롯한 유희기시설들을 단 4일동안에 끝내는 혁신이 창조되었다.

문수물놀이장이 불과 9개월동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된것은 당정적에 대한 고산과수농장에 510여대의 문화주택 건설대, 무조건적지를 지닌 우리 혁명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최대속도이다.

야외물놀이장과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이 하나로 결합되고 다른 나라 물놀이장의 규모와 설비의 종류와 가지수에 비해 근 3 배인 세상에 자랑할만 한 문수물놀이장은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전기가 어떤것인가를 온몸으로 절감하게 하며 인민의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를 세세년년 울려갈것이다.

평양시교외의 미림지구에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미림스마구락부가 훌륭히 일떠서 공평되었다.

62만 7 000여㎡나 되는 방대한 부지에 최상의 수준에서 꾸려진 스마구락부에는 스마주루와 스마훈련장들, 스마식보급실과 피로회복실, 수의병원과 종축연구소를 비롯하여 스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르치게 갖추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림스마구락부건설장을 여러차례 찾으면서 당의 건축미학사상과 인민편이 철저히 구현된 대승마사냥기지로 완전무결하게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자연과 가깝고도 친숙하게 통나무정식으로 외벽처리를 특색있게 하며 잔디 및 토사주루들을 잘 담고 말라기에 편리하게 스마주루 곳곳에 시설물들을 설치해주는 문제로 이곳까지 건설 전 과정을 세심히 지도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헌신은 전체 전투원들이 새로운 시대속도를 창조하게 한 사상정신적원동력이었다.

군인건설자들은 결사관철의 투쟁기풍으로 짧은 기간에 20여만㎡의 토량을 운반하여 인공산을 새롭게 형성하였다.

양산 공평들을 받아들여 수천에 달하는 토사주루와 잔디주루공사, 수만㎡에 달하는 실내체육관훈련장과 스마학교, 봉사전물건설 등을 7개월 남짓한 기간에 훌륭히 결속하였다.

의자에 이르기까지 형성안들을 100% 지도해주시고 폭우 내리는 건설장의 흉량길도 걸으며 건설의 3대요소가 최상의 수준에서 결합되도록 정력적으로 지도하시었다.

아동병원건설을 맡은 군인건설자들은 연속적인 타격전, 립체적인 공격방식으로 연전축면적이 수만㎡에 달하는 병원의 팔조공사를 완성한데 이어 내부미장과 2중 천정공크리트치기, 지붕외수기공사 등의 건설에서 인민내무군의 위력과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냈다.

혁신의 기상은 구강병원건설장에서도 세차게 나래쳐 건축물의 면모는 하루가 몰라보게 달라졌다.

병원들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병원들로 꾸려주시고도 개원을 앞둔 그날에는 병원들의 구석구석, 요소요소까지 돌아다니며 친히 병원이름들도 정을 담아 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편과 미배중시사상이 얼마나 숭고한가를 증시하고있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이 넘쳐흐르는 문수물놀이장과 어께나란히 문수기둥회복원이 일떠서 근로자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 선군문화의 중심지답게 더욱 웅장하고 품격있게 꾸리며 모든 도, 시, 군들을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사회주의건국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1 000여세대의 살림집과 학교, 병원, 유치원 등 공공건물들, 아동공원, 편의봉사시설들을 갖춘 은하과학자거리의 주체건축예술의 비약적인 발전면모와 당의 과학기술 중시사상을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주는 김정은시대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6만 5 000㎡의 기초공작과 7만 2 000㎡의 콘크리트기공을 불이 번쩍 나게 해제하는데 이어 살림집내부공사와 외벽타일 붙이기, 방대한 하부구조건설 등을 200여 일동안에 끝냄으로써 한적하던 벌판에 하나의 도시를 방불케 하는 새 거리를 주택지구 건설의 표준화, 본보기로 일떠세웠다.

통풍투어기에 초고층의 쌍기둥을 이루며 솟아오른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은 불수록 회한하다.

당이 정해준 목표를 절대기준으로 삼고 군인건설자들은 남달리든 엄두도 못낼 방대한 공사를 립체전, 전격적으로 내밀어 건축정도와 내부장식이 화려하고 특색있는 44층, 36층짜리 교육자살림집을 불과 몇달사이에 일떠세우는 위훈을 떨쳐냈다.

보통주택에 번듯하게 일떠선 체육인살림집은 우리 당이 나라의 체육인들에게 안겨준 보금자리이다.

은 나라에 건설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전국도처에 수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섰다.

수도를 본보기로 하여 회성시, 만포시와 창성군, 연탄군을 비롯한 시, 군에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 거리와 마을을 꾸리기 위한 투쟁이 적극 벌어졌다.

고산과수농장에 510여세대의 문화주택들이 로동당시대의 무릉도원으로 꾸려져 청춘대원들의 부흥을 약속하고있으며 성실관망, 천리마산기구에 수백동의 새 집들이 신기수마다에 한복의 그림자만 아담하게 일떠서 탄부들과 광부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고 있었다.

해안가와 해변을 두루이루며 청진시 포항지구 중심부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건설하고 남동청년과학연합기업소에서 500세대의 대충살림집을 특색있게 일떠세워 공업지구의 면모를 일신시켰다.

당의 은정속에 무도와 정제도 등 최첨단 마을들을 유양각을 방불케 하는 문화주택들이 솟아나 천도개벽된데 이어 얼마전에는 신도에 100세대의 살림집들이 일떠서 새집들이를 하는 경사가 졌다.

평성시, 사리원시와 박천군 등 전국의 거리와 마을들에서도 시대적요구를 반영한 수많은 생활집들이 키들움하며 일떠서고 염본진, 평안산호예이 멋쟁이호예로 건설되고있다.

체육강국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체육기자들이 도처에 건설, 개건된것은 당의 위대한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이다.

평양체육관이 불과 5개월 남짓한 기간에 각종 체육기구를 비롯하여 다용도, 다목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훌륭히 개건되어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빛을 뿌리고있다.

풍치수려한 통라도에 일떠선 평양국제 축구구장은 조국의 영예를 떨칠 체육국채 후비육성과 체육의 과학화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또 하나의 밀천이다.

청소년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릴수 있게 된것은 우리 인민군대에 파업을 주시고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결실이다.

하나를 주시면 열백을 더 주고싶어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에 떠날뉘러 통라도에서 체육인들이 종합적인 체육봉사기지로 꾸려져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열과 향만을 안겨주고있다.

지난해 10여개 구역에 체육유희오락, 편의봉사시설들을 갖추어놓은 평양시에서 올해에 또다시 수십개 공원을 새로 꾸렸으며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수지보트, 로라 스케트들이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문화정서생활에 리용되고있다.

각 도, 시(구역), 군안의 인민들도 조국애, 향토애로 심장을 불태우며 장자강인인 유원지, 인공민속속제원, 길성포체육공원 등 거리와 마을마다에 문화휴식터들을 조형하게 꾸림으로써 어디 가나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있다.

문수물놀이장을 본보기로 하여 함흥, 평성, 개성시와 용문, 연산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 타원형호름식물놀이장, 꽃모양물놀이장, 조약수조, 미로랜드 등을 지체적특성과 구색이 맞게 일신시켰다.

원산, 철보산지구를 비롯한 여러곳을 세계적구 휴양지, 관광지로 꾸리기 위한 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국가과학원에 잔디언구기지가 훌륭히 일떠선데 이어 함경북도, 황해남도에 잔디언구구조건설이 추진되며 조국산천을 사회주의건국으로 변모시킬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당의 국토건설구상을 받들고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순안지역의 보통강을 사회주의건국으로 변모시켰다.

개성시와 신령군에서는 개성-명동사-박연문화선도로를 형성하고 신령군강명승지건설을 완공함으로써 이 지구를 찾는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보장하고있다.

창으로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펼쳐진 전변의 새 모습, 사회주의문명의 자랑찬 현실은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령도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건설의 활로를 열어주시었다.

적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창조와 건설의 강풍으로 단호히 쳐물리치는 천출위인의 드림같은 신념과 의지, 방방에 의하여 경제건설에서 류례없는 건설의 대적전을 벌여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게 지어주시는데 이어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며 비약의 박차, 총공적전의 박차를 가해주시었다.

우리 조국의 천년 미래를 내다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대규모 세포동판개간전투장에서 새로운 대건설 속도창조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세포동판개간자들은 건설왕공주 1년간 2 000여동의 등간채간, 자연물판정리와 2 000여정보의 인공물판조성, 300여동의 건축물 창고, 연 1 000여km의 도로건설전투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 두텁은 대지에 또 하나의 세포동판전경을 펼쳐놓았다.

이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 배과락원으로 삼석지구에 1 000여정보의 사과바다를 펼쳐지고 오늘날은 그 2배이상이나 되는 대정촌과원이 철령아래에 솟아나 보다 풍성한열매 레일을 그려보게 하고있다.

동해에서 서해에로의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길에서 남쪽의 능력이 큰기성3경은실박막상산공정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안주시 총합력동농장 남새논식 등을 현지지도하시며 은 나라에 남새온실건설비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주시었다.

평양, 청진, 남포, 단천과 함주, 봉천, 신천, 법동, 안변 등 수많은 시, 군들에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7 000여동의 남새온실들을 짧은 기일에 지어놓았다.

창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한 기간에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실현되고 모든 연구조건이 충실히 갖추어진 국가과학원 중앙비석언구구조 번듯하게 일떠섰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대적으로 생산하는 보성비석공장을 본보기로 평양과 평성, 강계, 안주, 개성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이바지할 버섯공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며 풍성한 레일을 약속하고있다.

군대에서 타원형호름식물놀이장, 꽃모양물놀이장, 조약수조, 미로랜드 등을 지체적특성과 구색이 맞게 일신시켰다.

원산, 철보산지구를 비롯한 여러곳을 세계적구 휴양지, 관광지로 꾸리기 위한 건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국가과학원에 잔디언구기지가 훌륭히 일떠선데 이어 함경북도, 황해남도에 잔디언구구조건설이 추진되며 조국산천을 사회주의건국으로 변모시킬수 있게 되었다.

우리 당의 국토건설구상을 받들고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순안지역의 보통강을 사회주의건국으로 변모시켰다.

개성시와 신령군에서는 개성-명동사-박연문화선도로를 형성하고 신령군강명승지건설을 완공함으로써 이 지구를 찾는 인민들에게 보다 좋은 문화정서생활조건을 보장하고있다.

창으로 내 나라의 푸른 하늘아래 펼쳐진 전변의 새 모습, 사회주의문명의 자랑찬 현실은 인민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헌신과 로고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정력적인 령도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건설의 활로를 열어주시었다.

적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창조와 건설의 강풍으로 단호히 쳐물리치는 천출위인의 드림같은 신념과 의지, 방방에 의하여 경제건설에서 류례없는 건설의 대적전을 벌여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게 지어주시는데 이어 수많은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며 비약의 박차, 총공적전의 박차를 가해주시었다.

우리 조국의 천년 미래를 내다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주신 대규모 세포동판개간전투장에서 새로운 대건설 속도창조의 불길이 거세차게 타올랐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세포동판개간자들은 건설왕공주 1년간 2 000여동의 등간채간, 자연물판정리와 2 000여정보의 인공물판조성, 300여동의 건축물 창고, 연 1 000여km의 도로건설전투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 두텁은 대지에 또 하나의 세포동판전경을 펼쳐놓았다.

이제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회주의 배과락원으로 삼석지구에 1 000여정보의 사과바다를 펼쳐지고 오늘날은 그 2배이상이나 되는 대정촌과원이 철령아래에 솟아나 보다 풍성한열매 레일을 그려보게 하고있다.

동해에서 서해에로의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시는 길에서 남쪽의 능력이 큰기성3경은실박막상산공정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안주시 총합력동농장 남새논식 등을 현지지도하시며 은 나라에 남새온실건설비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주시었다.

평양, 청진, 남포, 단천과 함주, 봉천, 신천, 법동, 안변 등 수많은 시, 군들에서 지방의 특성에 맞게 표준화된 7 000여동의 남새온실들을 짧은 기일에 지어놓았다.

창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남짓한 기간에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가 실현되고 모든 연구조건이 충실히 갖추어진 국가과학원 중앙비석언구구조 번듯하게 일떠섰다.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대적으로 생산하는 보성비석공장을 본보기로 평양과 평성, 강계, 안주, 개성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을 이바지할 버섯공장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며 풍성한 레일을 약속하고있다.

로동자들의 회한한 궁전, 로동당시대의 빛이 나는 멋쟁이공장으로 일떠선 평양이 초시공공장과 창성의 지방산업공장을 본보기로 전국도처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건설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났고있다.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함흥모방직공장에 수천1능력의 편직생산공장이 새로 꾸려지고 함흥편직공장현대화공사가 완공된것은 질풍은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는 토대로 된다.

박천직공공장 비로도직장이 일떠서고 평성합성기속공공장 생산공장이 개건되었으며 생물공학작업에 의한 첨단생산공공정을 확립한 비리안C생산기지가 건설되었다.

주체적인 과학연구기지는 인정과학자구에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 우리의 과학기술을 추동하게 될 첨단과학기술개발 및 보급기지가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지고있다.

전국각지에서 발전소건설이 적극 벌어지고있다.

어버이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뜨겁게 깃들여있는 만포열해발전소가 선군시대의 창조물로 일떠선데 이어 어랑천2호발전소, 초산청년2호발전소가 려이 완공되었다.

청진강계발전발전소,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자들과 군인들은 강하천들을 보배강, 전기강으로 전변시켜 나라의 전력수요를 하루빨리 보장할 일념안고 새로운 건설공법

평 양

